

올여름 문화관광시장 ‘들썩’

여름휴가기 국내 각지 문화관광소비활동 약 3 만 7,000 회, 국내 호텔 항공권 검색량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 제 34 회 청도국제맥주페스티벌

무더운 여름의 더위도 이제 끝자락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나라 문화관광소비시장은 여전히 식지 않는 열기를 자랑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여름철 휴가 기간 국내 각지에서는 4,000 개 종목 이상의 문화관광 소비활동이 약 3 만 7,000 회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서비스 업체 씨트립 플랫폼에서는 국내 호텔, 항공권 검색량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또한 올림픽 기간 우리 나라 관광객의 빠리 관광 주문도 105% 확대됐다.

■ 문화관광시장 혁신 ‘광복행보’

‘제 1 회 중국신강민간예술시즌’, ‘제 27 회 북경국제음악축제’, ‘물의 음률 강소성·잔란한 여름밤’... 일년중 최적의 관광 시즌인 여름을 맞아 국내 각지에서는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문화관광소비에 불을 붙이고자 다양한

테마의 문화관광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 ‘관광 +’, 수요 맞춤형 상품 인기

올림픽 바통을 이어받은 귀주성 ‘춘마을 수퍼리그’, 둔황 명사산자락 콘서트, 영화·드라마 촬영지 탐방 등 이색 문화관광 상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

해변과 숲에서 펼쳐진 음악축제부터 전시회·아웃도어 스포츠 경기 등 갈수록 개인화·다원화·고급화된 서비스 소비 수요에 발맞춰 ‘관광 + 공연’, ‘관광 + 피서’ 등 새로운 씨나리오가 줄을 잇고 있다.

■ 섬세한 서비스로 관광객 마음 출쳐

지난 1 일 밤, 국가자연박물관이 일년에 한번 개최하는 ‘박물관의 밤’ 행사가 열려 많은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처럼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 각지의 박물관

관은 관람시간 연장, 입장권 현장 구매 가능, 주 1 회 휴관 취소 등 조치를 통해 관람에 편의를 더했다.

사천성 성도는 6 월부터 3,000 만원 상당의 문화관광쿠폰을 지급했다. 성도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입장권 할인, 일정 금액 이상 구입시 할인, 패키지 할인 등 조치를 내놓았다.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 관광지 무료입장, 우대정책들도 줄을 이었다.

앞서 문화관광부 산업발전사 책임자는 문화관광 및 관련 산업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소비 +’ 활동을 개최하고 있다며 료식·숙박·스포츠·디지털·복색·헬스 등 분야 소비를 함께 진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관광소비 씨나리오를 혁신해 개성이 넘치는 맞춤형 상품 공급을 늘려 다원화된 소비 수요를 충족시킬 방침이라고 전했다.

/ 신화사

연길 – 장백산 북쪽풍경구 도시구간 공공버스 개통

최근 연길시가 전국 관광객들의 필수 탐방지역, 관광목적지로 거듭나면서 연길을 경유하여 장백산으로 가는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두 지역간의 력객 운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연변동북아려객운수그룹은 8 월 30 일부터 연길로부터 장백산 북쪽풍경구 (이도백하진) 관광도시간 공공버스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 로선은 9 월 30 일부터 정식으로 운영된다.

알아본 데 따르면 현재 연길로부터 장백산까지 일평균 력객 흐름량은 3,000 명에서 5,000 명에 달하며 성수기에는 1 만명을 초과하고 있다. 현재 관광객들은 두 지역을 오감에 있어서 주로 관광 전세버스, 력객버스, 연변동북아려객운수그룹 맞춤형 력객운송, 자가운전 등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고객을 속이거나 함부로 수급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지역 형상에 영향주는 위법행위를 방지하며 편리하고 안전한 량질의 관광교통망을 구축하고 두 지역 관광의 상호 발전을 추동하기 위해 연변동북아려객운수그룹은 이 로선을 개통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연변동북아려객운수그룹은 연백

관광도시간공공버스회사를 설립하고 16 대의 50 인승 고급버스 (순수 전기차 포함) 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 버스는 연길에서 장백산까지 두곳의 력객 흐름 상황에 따라 운행하며 매일 23 회 46 편 (계절, 력객 흐름 상황에 따라 조정) 을 보장하게 된다.

연백관광도시간공공버스회사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이 로선은 대부분 연길에서 고속도로에 오른 후 장백산 북쪽풍경구로 직행하는데 왕복 시 시발점과 종착역이 같다. 이 밖에 일부 로선은 연길도로려객운수역에서 출발해 공신은포, 연길서역, 송강, 이도백하려객운수소, 신달호텔, 추시아공원을 경유하여 장백산 북쪽풍경구 집산중심까지 가게 되는데 왕복 시에도 경유하는 역이 동일하다. 첫차는 6 시에 출발하고 막차는 17 시에 출발하며 편도 요금은 인당 45 원이고 왕복 요금은 70 원이다.

관광객은 예매 전화를 통해 정시 발차, 예약 등 봉사를 제공받을 수 있고 출행 365, 12306, Ctrip 등의 플랫폼을 통해 티켓을 구매하거나 연길도로려객운수역 전화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표를 예매할 수도 있다.

/ 연변조간



[러행수기]

◎ 리창렬

내가 가본 신강 (4)

우리 나라 7 월 민간항공 운송량, 월간 최고치 경신

우리 나라 민간항공 운송 규모가 지난달 월간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국민용항공국 (CAAC) 에 따르면 중국 민항업계의 7 월 총 운송량은 136 억 3,000 만톤 킬로 (Ton-kilo, 1 톤의 화물을 1 킬로미터 운송할 시 1 톤킬로) 를 돌파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9.9% 증가한 수치다.

해당 기간 력객운송량은 약 6,914 만건에 달해 지난해 동월보다 10.8% 늘었다. 이중 국

제 력객은 613 만건으로 2019 년 7 월 수준의 93% 까지 회복됐다.

화물운송량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한 약 75 만 2,000 톤의 화물과 우편물이 항공으로 운송됐다.

CAAC 관계자는 민항업계가 여름 휴가철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며 특히 지난 10 일 력객운송량은 245 만건으로 단일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 신화사



연길관광 호황에 체인호텔들 잇달아 입주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현재 연길시에서 호텔로 등록된 경영업체가 504 개에 달하는 가운데 2024 년에 75 개 호텔이 새롭게 등록했으며 그중에는 국내에서 비교적 이름이 있는 체인호텔들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길에 ‘왕홍도시’로 거듭나면서 관광의 변형은 호텔업종에 전례없는 기회를 가져다주었으며 따라서 국내 체인호텔들도 잇달아 연길에 입주, 연길관광을 견인하는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료해한 데 따르면 이와 중등도시 또는 대도시에서만 볼 수 있었던 올시즌, 러풍, 오리엔지, 희안, 조만 등 브랜드 체인호텔이 최근 연변에도 발길을 돌린 가운데 올시즌호텔은 연길, 훈춘, 이도백하, 둔화 등지에 6 개의 지점을 열었고 5 월에는 금강호텔 연변대학점이 오픈했으며 7 월에는 러풍호텔 연길만달점이 오픈했다. 이같이 브랜드를 구축한 호텔들이 잇달아 연길에 입주하면서 연길 호텔업종의 봉사 수

준과 접대 능력을 끌어올리고 대외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확립하는 데도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저는 외지에서 희안호텔에 머무른 적 있습니다. 이 호텔은 세련된 생활방식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럭셔리한 호텔입니다. 저는 여행을 다니면 제일 먼저 희안호텔을 선택합니다.” 시민 왕녀사는 올해 희안호텔이 연길에 입주한 것을 보고 연길이 인터넷 인기 도시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오렌지호텔 백화점상점 관계자는 오렌지호텔은 세계 최대의 호텔관리회사인 화주그룹에 소속되어있으며 그룹 산하에는 올시즌, 성정, 한정, 이비스 등 다양한 브랜드 호텔이 있고 다양한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다채로운 여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최근 연길시에 관광객들이 몰려오면서 화주그룹은 부단히 투자를 늘이면서 적지 않은 리운을 올렸다고 소개했다. / 연변일보

엄숙한 분위기 탈피...

MZ 세대에서 뜨는

이색 테마 박물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교과서 박물관, 커피 박물관, 세계 연 박물관 등 이색 테마 박물관이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대형 종합 박물관에 비해 ‘세밀함’이 돋보이는 테마 박물관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세심한 접근법으로 젊은층을 끌어들이고 있다.

테마 박물관이 뜨는 주된 이유로 젊은 세대의 관심과 심리를 사로잡는 점이 꼽힌다. 참신하고 독특한 시각으로 문화적 의미를 전시함으로써 개성화된 소비 성향과 다양해진 지식 수요를 채워준다는 점이다.

또한 박물관을 즐기는 새로운 놀이법으로 토폴레이 투어, 퍼즐 게임, 몰입형 공연 등을 도입해 오락성과 대중성을 모두 잡았다.

사람에 치이며 줄 서서 기다리지 않고 시·공간적으로 여유를 갖고 전시품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색 테마 박물관이 핫해지면서 서비스와 관리에 대한 승격 필요성도 대두된다. 지금의 인기를 길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변 부대시설 확충, 업종 다양화 등을 통해 매력을 좀더 끌어올리고 하드웨어 승격, 인재 유치, 전시품 최적화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 신화사



▲ 북경 자동차박물관을 찾은 어린이가 인터랙티브 게임을 즐기고 있다.

가 아주 넓다. 이 우물은 장기간 톨판인들이 농업, 목축업 생산을 진행하고 사람과 가축이 음료수로 사용하는 주요한 수원중 하나였다.

톨판의 관개용 우물 총수는 1,100 여갈 레이고 총 길이는 5,000 킬로미터로 만리장성, 경향대운하와 함께 중국 고대 3대 공적으로 불린다.

톨판에서의 점심은 해창호텔 (海昌酒店)에 배치되었는데 식사 손님은 모두 력행객들이었다. 삼마다 여덟가지 특색 음식과 네가지 중국료리가 오르고 이외 부페로 과자, 과일, 음료가 갖추어졌다. 음식이 풍성하고 맛났는데 또 가무공연까지 있다. 연월은 일색으로 당지의 소수민족이다. 민족특색이 짙은 서역의 노래는 신나고 열정이 북받쳤다. 서역 녀메우들이 사발을 머리에 이고 추는 춤은 기술 수준이 아주 높았다. 조선족의 물동이춤과 비슷하였다.

해창호텔에 이어 계속되는 력행지는 톨판시 아얼진 차장촌 (亚尔镇恰章村)이다. 이 촌의 촌장은 40 대의 위급족 남성이었는데 룽색 4 각모자를 쓰고 있었다. 룽색모자는 국내 대부분 지역에서는 사람을 욕하는 말로 쓰이기에 룽색모자를 쓰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런데 위급족들은 그렇지 않다. 한마을에 룽색모자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사람뿐인데 반드시 덕망이 제일 높은 사람이여야 한다. 지금은 촌장만이 쓸 수 있고 기타 사람은 누구도 룽색모자를 쓸 수 없다.

차장촌의 ‘원몽원포도장원’ (圆梦葡萄庄园)은 포도 재배와 채집을 위주로 력행, 휴식,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생태정원이다. 이곳의 포도와 하미과 (哈密瓜)는 아주 유명하고 그 맛이 정말 좋다.

당지 촌민들의 소개에 따르면 이곳은 건조하고 가물어서 밭에는 벌레가 생기지 않고 집에는 파리나 모기가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어쩌다 보이는 파리나 모기는 생활쓰레기로 생기는 것이란다. 때문에 그들이 재배하는 과일과 채소는 농약이 근본 필요 없다는 것이다.

러행은 많은 것을 직접 보고 듣고 감지하면서 배우는 좋은 기회이다. 백문불여 일견이라는 말이 과연 지당함을 다시 한 번 느껴본다.

(끝)